

합격기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먼지 한 알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곳



임수민

- 1986년 9월 생
- 서울 오금고등학교 졸업(05년)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졸업(09년)
-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합격(11등)

I. 들어가는 글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합격수기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은 제가 합격수기를 읽으면 자신감만 더 없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안감과 열등감을 가진 채 사법시험을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날은 자다가도 숨이 막혀 일어나서 구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언젠가 부르는 꿈에서 판례의 사실관계가 나오고, 잠꼬대로 판례문구를 말할 정도였으니 지난 2년 동안은 다른 생각없이 사법시험 준비에만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대세'를 따라갔던, 특별할 것 없는 저의 공부방법을 자세히 적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난 수험기간동안 공부했던 과정을 솔직하게 적어보고자 합니다.

II.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기까지

저는 2005년 대학에 입학하여 2008년 4학년 1학기 까지 휴학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어렸을 때부터의 꿈인 '현명하고 공정한 판사'가 되고자 법학과에 진학했고 사법시험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이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도 없이 대학교 1,2,3 학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2008년 2월,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사법시험 1차에 응시하였으나 예상했던 대로 불합격 하였을 때까지도, ‘난 시험 공부 제대로 안했으니까 괜챦아’하는 단일한 생각에 젖어있었습니다. ‘열심히 하 고도 불합격 하는 것보다 열심히 안하고 불합격하는 게 덜 억울하지’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 ‘셀프핸드캐핑’(중요한 시험이나 일을 하기 전, 실패했을 시를 대비하여 미리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을 부르게 되고, 이것이 ‘일부러 남들 보란 듯이 노는’ 나태함과 불성실함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보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정찬주 저 『자기를 속이지 말라』 중에서 이런 글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의 성과가 없다고 하여 초조해 할 것이 못된다. 인과의 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셈이니까. 먼저 한 알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곳이 세상이니까”

정말로 억울해야 할 것은, 열심히 했는데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만약의 경우’가 아니라 목표를 위해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자기합리화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저의 머리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집쟁이의 태도를 버리고 나의 인과의 통장에 꿈을 위한 저축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꺼내 쓸 날이 올 것이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III. 공부방법

1. 1차 준비 -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

(1) 휴학 결심, 교재선택

4학년 1학기를 마치고서야 본격적인 사법시험 공부를 위한 휴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공부는 집에서 동네독서실을 오가며 혼자서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먼저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한 선배와 친구에게 혼자서 1차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교재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고민 없이 선택하였습니다. 민법은 권순한 강사의 <민법요해 I>, <민법요해 II>를, 형법은 신호진 강사의 <형법요론>을, 헌법은 정회철 강사의 <기본강의 헌법>, <판례강의헌법>을 기본서로 결정하였습니다.

(2) 7월부터 9월 까지-1순환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선 고시학원 사이트를 통해 작년도 진도별 모의고사의 진도표를 인쇄하는 일이었습니다. 1차 시험 진도별 모의고사는 각 민법 28회, 형법 22회, 헌법 18회였는데, 하루에 한 회 씩 배정하고 진도가 밀릴 것에 대비하여 과목별로 진도 보충의 날을 배정하여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기본강의는 2007년도에 학교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강의는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 것은 아니고 그

진도표에 따라 책을 한번 꼼꼼히 정독하고, 기출문제집과 700제 문제집을 진도에 따라 한 번씩 풀었습니다. 700제 문제집에 빠진 기출문제는 오려서 700제 문제집에 붙여 문제집 단권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아침 11시에 독서실에 가서 밤 12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고 TV를 보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4시간 정도 였으니 독서실에 9시간 정도는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매일 독서실을 갔기 때문에 거의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 자체를 보면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닌데도, 쉬는 날 없이 공부를 하다보니 공부를 시작하지 한 달 만인 8월에 건강에 무리가 와서 이틀정도 입원을 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럴 땐 꼭 쉬는 것이 필요하데, 저는 입원한 도중에도 민법요해 책을 가져가서 누운 채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도를 타이트하게 구성하다 보니 하루이틀 쉬고 나면 진도 압박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수험생활을 위해서 적당한 휴식과 적당한 계획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도한 의욕을 앞세우면 저처럼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2순환과 선택과목 공부

(가) 민법, 형법, 헌법을 진도표의 이틀치 진도를 하루로 배정하여 2회독에 들어갔습니다. 68일치를 둘로 나누어

34일이 되는데 진도가 두 배로 늘어난 만큼 진도가 밀릴 것에 대비하여 과목당 2일 정도 더 배정하여 총 40일로 계획을 짰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는 과목별로 1순환 때 풀었던 700제 문제집을 한번 더 풀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시계사에서 나온 <진도별모의고사> 문제집을 추가하여 진도에 맞추어 풀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나 지문을 찾아 별표를 해두고 해설지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이거나 어려운 문제는 오려서 700제 문제집에 붙여 단권화 하였습니다.

(나) 선택과목은 형사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형사정책은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헌법, 형법과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선배의 권유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삼법에 대한 욕심 때문에 따로 선택과목 공부기간을 잡지는 못했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씩 김옥현 강사의 형사정책 강의 테이프를 듣고 김옥현 편저 <쉽게 풀이한 형사정책학>을 읽었습니다.

(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침 10시부터 밤12시까지 독서실에 있었습니다. 밥먹는 시간과 TV보는 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 정도 독서실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한 과목을 공부하는 동안에 다른 과목에 대한 감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 청출어람사의 <10년기출지문> OX문제집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OX문제집은 원래 진도와는 다르게, 민법을 하는 기간에는 형법지문을, 형법을 하는 기간에는 헌법지문을, 헌법을 하는 동안

에는 민법지문 OX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활용했습니다. 정해진 진도나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항상 침대 옆에다 두고 책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4) 12월초부터 12월 말까지 - 3순환

이 기간 동안에는 진도표의 3일치를 하루 진도로 배정하고(총 23일), 진도가 밀릴 것에 대비하여 총 30일로 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공부방법은 2순환과 같았습니다. 책을 빠르게 읽고, 기출문제집과 고시계 진도별모의고사를 단권화 한 70제 문제집을 푸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선택과목은 매일 11시부터 12시 까지 책을 읽는 방법으로 하루에 한시간씩 꾸준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 때 까지 다른 과목의 OX문제집을 봤습니다.

(5) 2009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 4순환과 5순환

이 기간 동안에는 과목별로 빠르게 기본서를 읽고, 단권화된 70제 문제집을 풀 뒤 고시계사의 <전범위 모의고사-8회분>을 풀었습니다. 틀린 문제와 맞은 문제 모두 해설지를 기본서 읽는 것처럼 꼼꼼히 줄을 그어 가며 읽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나거나 헷갈리는 판례는 포스트잇에 적어 독서실 책상 곳곳에 붙여 두었습니다. 선택과목은 12시부터 12시 30분 까지 매일 30분씩을 투자하여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까지는 침대에 앉아 그 날 풀었던 전범위모의고사의 해설지를 읽었습니다.

(6) 시험 전날과 시험 당일, 채점결과 시험 전날에는 과목별로 <전범위 모의

고사>의 해설지에 중요표시 해둔 것을 빠르게 읽고 독서실 책상 곳곳에 붙여둔 포스트잇을 연습장에 모두 옮겨 붙이고 한 번씩 읽고 잠을 잤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포스트잇과 <전범위 모의고사> 해설지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포스트잇과 해설지를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최신판례는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모든 과목에서 최신판례 문제가 많이 나와서 당황을 했었습니다. 최신판례는 시간을 내서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신 판례 문제에서 많이 당황했기에, 시험결과가 안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침울한 기분으로 시험을 마쳤습니다. 다만 불합격을 하더라도 내년엔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 채점을 했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고득점, 평균이 88점으로 바로 1차 합격을 확신 할 수 있었습니다.

22차시험 준비 -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 2009년 2월부터 6월 까지 - 초시를 치르기까지

1차 시험 채점 직후 합격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 바로 2차시험 준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1차 준비기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기에 체력이 바닥이 난데다가 뭔가를 해내었다는 성취감에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냥 놀 수만은 없을 것 같아 복

학하여 마지막 학기 학교를 다니면서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기를 탄탄히 해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백태승교수님의 민사연습 수업과 전지연교수님의 형사연습 수업, 헌법 교양수업도 함께 들으면서 헌법, 민법, 형법 공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본 2차 시험은 기본삼법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 가진 상태에서 그러나 후사법에 대한 지식은 전무인 상태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2차시험 결과 후사법은 모두 과락이었고, 기본삼법은 생각보다 고득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본삼법에 대해 시간을 넉넉히 잡고 공부한 덕에 재시를 치를 때까지 기본삼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2차시험용 교재선택, 2차 공부 방향 결정

학교에서 2차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합격률이 50%를 넘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2차 강의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본서도 거의 고민하지 않고, 학교에서 하는 강의에 맞추어 그때그때 구입했습니다. 1순환은 1차 때처럼 동네독서실을 오가며 인터넷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해봤는데 혼자서는 제대로 되지가 않아 2순환 때는 학교근처에 원룸을 얻어 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3) 2009년 7월부터 11월 중순 까지 - 1순환

(가) 과목별 공부

민사소송법은 이창한 강사의 <통합 민사소송법>을 기본서로 하여 이창한 강사

의 1순환 강의를, 행정법은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특강>을 기본서로 하여 김기홍 강사의 1순환 강의를 신청하여 들었습니다. 상법은 김혁봉강사의 <상법신강>을 기본서로 하여 김혁봉 강사의 인터넷강의를, 형사소송법은 이재상 교수님의 <신 형사소송법>을 기본서로 하여 신이철 강사의 형사소송법 1순환 강의를 들었습니다. 과목별로 후사법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지만 제대로 이해가 되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이라 기본서를 한 번 베끼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이 공부하는 양과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해주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효과가 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1순환 중간에 서브노트 만들기를 포기하고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기본삼법은 1차가 끝난 이후에도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후사법에 비해서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은 이재상강사 <더 형법>을 기본서로 하여 1순환 강의를 들었고, 헌법은 정희철 강사의 <사례헌법연습>과 <단문헌법연습>을 기본서로 하여 김유향강사의 헌법 1순환 강의를 들었습니다. 민법은 노재호판사의 <민법교안>을 기본서로 하여 윤동환강사의 민법 1순환 강의를 들었습니다. <민법교안>은 사례풀이에 필요한 쟁점을 주로 다루고 그렇지 않은 쟁점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읽

을 때 조금씩 끝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팀교수의 <민법강의> 책을 1순환 때 함께 펴놓고 보면서, <민법교안>에서 생략되어있는 개념이나 쟁점을 <민법교안>에 옮겨 적으면서 단권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 책정리의 시작, 모의고사

1순환 때에는 '이해'에 중점을 두고 기본서를 읽고 책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과목에 있어서 문제소재는 초록색으로, 학설이름은 노란색으로, 판례는 빨간색으로, 검토는 다시 초록색으로 줄을 긋는 규칙을 만들어서 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막판에 빠르게 책장을 넘길 때에 논의 대립이 있는 쟁점부분을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는 기본서 읽는데도 시간이 벽차서 사례집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보면 쟁점도 잘 찾아내지 못하고 목차도 엉터리였지만, 찾아낸 논점에 관해서 논리적인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4)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 2순환

(가) 2순환 SW반 등록

1순환 때 독서실을 오가며 혼자서 공부해보니, 2차 공부는 1차 공부와는 달리 바로바로 답안지를 채점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답안작성에 대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순환부터는 학교근처에 원룸을 얻어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주 5회 시험을 보는 SW반에 등록하였습니다. SW반은 주어진 진도표에 따라 혼자서 공부를 하고 하루에 한 시간씩, 50점 짜리 문제로

주 5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는 1순환 때 강의를 들을 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혼자서 공부를 해온 뒤에 시험만 보는 SW반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나) 과목별 공부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시험을 보기 전까지 1순환 때 정리해둔 책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사례집은 1순환 때 손도 대지 못했기 때문에 2순환이 되어서야 사례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서와 사례집간의 호환성이 고려하여, 7법 모두 기본서와 저자가 같은 책으로 (행정부법은 김기홍강사저, 민법은 윤동환강사저 사례집을 선택) 사례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기본서를 볼 시간도 부족하기는 했지만, 사례집을 보느냐 안보느냐에 따라 그날그날 모의고사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례집을 꼭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례집을 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오로지 모의고사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사례집만 보는 일은 지양해야합니다. 저는 2순환 상법에서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은 욕심에 사례집만 보며 외우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모의고사 점수는 조금 잘 나왔지만 상법에 대한 기본기를 전혀 다질 수 없어 막판까지 고생해야 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분들은 사례집을 위주로 보는 방법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저처럼 아무 기본기 없이 그저 모의고사 점수를 잘 받으려는 목적으로만 사례집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점수에 욕심을 내서는 안되고 기본기를 닦는데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제

가 수험기간 동안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바로 2순환 상법에서 모의고사 점수에만 욕심을 냈던 점입니다.

(5)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 3순환
3월부터는 학교의 3순환 교수모의고사를 신청하였습니다. 3순환을 앞두고 학원모의고사와 교수모의고사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학원 모의고사는 많이 풀어봤고 사례집을 보면 충분히 연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수모의고사를 선택했습니다. 3순환부터는 하루에 봐야 하는 진도가 몇 배로 늘어나서 공부량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줄여가며 하루종일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기본서를 빠르게 읽고 사례집의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사례집은 주옥 읽는 것이 아니고 모의고사를 풀듯이 먼저 문제만 보고 연습장에 목차를 잡아보고, 답을 맞춰보는 식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3순환 모의고사 문제 중에 사례집에 없는 문제만을 추려 사례집 사이사이에 끼 넣고 사례집을 단권화 하였습니다. 잘외워지지 않는 중요한 판례나 쟁점은 두문자를 따서 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3순환이 되자 후사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책을 읽는 시간을 줄여줄 서브노트를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모든 과목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책을 보기가 힘들었던 형사소송법과 행정법, 헌법의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기본서를 읽는 대신 서브노트만 읽으면 될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를 하였

기 때문에 막판 4,5,6 순환때 공부시간과 양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브노트는 문제소재 키워드, 각 학설의 논거하나, 판례의 키워드, 검토할 논거 하나를 각 한 단어로 요약하여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6) 5월 중순부터 시험날 까지 -4,5,6 순환

시험이 49일 남은 시점 부터는 이른바 '4-2-1'을 실행하기 위하여 계획을 짰습니다. 시험 순서 역순으로 구성하여 민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상법-헌법-행정법 순으로 진도를 구성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점부터가 가장 많이 힘들었지만 합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서브노트가 있어서 빨리 볼 자신이 있었던 형사소송법과 헌법, 행정법은 4일에서 하루 앞당겨 3일로 줄이는 등 막판에 여유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루 중 2/3 동안은 기본서를 빠르게 읽고, 1/3시간 동안은 사례집을 풀었습니다. 사례집은 3순환 때와 같이 문제를 읽고 연습장에 간단하게 라도 목차를 적어보는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 때 사례를 풀어놓은 연습장을 보면 글씨가 거의 해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비록 그렇더라도 머릿속에서만 문제를 푸는 것과 답안을 직접 그려보는 것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몇 문제라도 꼭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간동안에 스트레스 때문인지 불면증이 와서 며칠 동안은 누워있어도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잠을 못이루고 누워있

는 동안에는 가장 취약했던 과목인 상법 기본서를 제가 읽어서 녹음한 테이프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7) 시험 전날과 시험 당일

시험 전날에는 과목별로 책장을 빠르게 넘겨 쟁점의 이름만 눈에 익히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 잠을 충분히 잤습니다. 전날 본 부분에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시험장에서 머리가 잘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서도 거의 1.5초 간격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쟁점의 이름만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연습장에 답안의 뼈대를 구성하는 연습을 했지만, 오랜만에 실제 답안을 작성하려고 하니 분량 조절과 시간조절에 대한 감이 많이 없어서 시험장에서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막판에 시간을 내서 답안을 써보는 연습을 한 번 한다면 첫 날 시험에서도 수월하게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V. 공부외적인 문제와 극복

이상에서는 공부와 관련된 글만 적었는데, 사실 수험기간동안에는 공부 자체와 관련된 것 뿐 아니라 공부외적인 고민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수험기간 자체를 흔들여놓기도 합니다. '기복 없이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2차 2순환 초반에 슬럼프가 와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지고 생활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진도가 밀리고 연속 4회 정도 시험에 응

시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슬럼프가 와서 진도가 밀린 것인지, 진도가 밀려서 슬럼프가 온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양자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수험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순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없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사 슬럼프에 빠졌더라도 되도록 빨리 슬럼프의 원인을 해결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제 슬럼프의 원인은 수험생활의 가장 큰 적인 불안감과 외로움 때문이었는데 그 때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서 함께 공부하는 선배, 동기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의지하면서 극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막판에는 진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시험 압박도 커지면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지만, 저는 한 번씩 학교 근처 편의점 달려가 채소를 사서 '마구마구'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뭔가를 아삭아삭 씹는 것이나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하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V. 나가며

저의 지난 2년을 돌아켜보면 '합격에 대한 기대'보다 '불합격에 대한 공포'가 제 생활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선배로부터 '이 시험은 열심히 안하면 당연히 떨어지고, 열심히 해도 떨어질 수도 있는 시험이다.'라는 말을 듣고 난

뒤에는 공포감이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포감이 들 때마다 ‘열심히 해서 안 된다면 치열하게 해주지.’ 하고 마음을 잡았습니다. 1,2차 시험 전 6개월 동안은 하루도 쉬지 않았고 매일 매일 잠들기 직전까지 책을 보다 잤으니, 2차 시험을 마치고 시험장을 나오면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너 진짜 독하다.’하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공포감이 역설적으로 수험생활을 버티게 해준 힘이 되기도 했던 셈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열등감이나 자괴감이 들 때도 많은데, 저는 선천적인 능력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프라이드’로 삼으며 그것을 이겼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비겁한 행동은 이런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열심히 해보지도 않는 것일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항상 마주하게 되는 공포와 열등감을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해 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감정 자체가 지금 진지하게,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

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시험에 매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지 한 알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예, 우리는 무엇이든, 치열하게 해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사랑으로 안아주신 부모님, 언니, 남동생 재웅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수험기간 동안 외로움과 싸울 용기를 준 소중한 친구 윤정이, 수영 언니, 주연언니, 계속언니, 우정이, 나라, 애영이, 지민이, 미정이, 태희, 용이, 내가 뒤쳐져있을 때 손을 잡고 이끌어 준 보람이, 히딩크 같은 존재 송국오빠, 후견인 준형오빠, 주원오빠, 불수오빠, 답안작성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준 효정이, 민혁이, 태호오빠, 지영언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연세대학교 사법시험지원팀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일일이 이름을 적지는 못하였지만 수험기간동안 제 곁을 지켜준 많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의 선배님들, 친구들, 후배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당신들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지켜주고 사랑해주셨듯이, 저도 당신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합니다.